

호주 자원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목 차

요 약 / 1

I. 자원보유 현황

- 2 | 1. 개황
- 5 | 2. 부존자원 규모

II. 자원개발 현황

- 16 | 1. 개발 및 생산동향
- 24 | 2. 외국기업 투자현황
- 28 | 3. 우리기업 투자현황

III. 자원개발 관련제도

- 31 | 1. 호주 정부정책
- 35 | 2. 관련법령 및 규제
- 48 | 3. 자원개발 인프라

IV. 우리의 진출전략

- 54 | 1. 종합적 진출방안
- 57 | 2. 유망 진출분야
- 58 | 3. 진출 시 유의사항

요 약

2013년 3월 삼성물산이 Roy Hill 철광석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거두면서 호주 자원개발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호주는 우리나라 광물 수입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자원교역 파트너로 철광석, 아연, 니켈 등 광물자원 매장량은 세계 최대이며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자원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광업 발전을 위해 자원외교 노력과 함께 주요 수입국들과 FTA 협상 추진,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일찌감치 호주 자원시장에 진출하여 지분을 확보하였다. 미국은 2005년 미·호주 FTA 발효 이후 對호주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영기업 위주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역시 서호주 지역 철광석 투자를 중심으로 진출해 왔다.

호주 자원개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규에 주의해야 한다. 현지 자원 관련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의 사전심사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광물자원임대세(MRRT)와 탄소세(Carbon Tax)가 2012년에 새롭게 도입되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담보상태에 있는 한·호주 FTA 체결을 통해 원활한 진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관련 기업들은 투자의 대형화·다각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개발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자원 자주개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우라늄, 아연, 니켈 등 전략광물과 천연가스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면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한 장기적 투자계획 수립과 안정적 재원확보 등 종합적인 사전준비가 호주 진출 성공의 열쇠라 하겠다.

I

자원보유 현황

1. 개황

□ 호주 경제의 견인차, 광업

○ 호주 경제성장과 광업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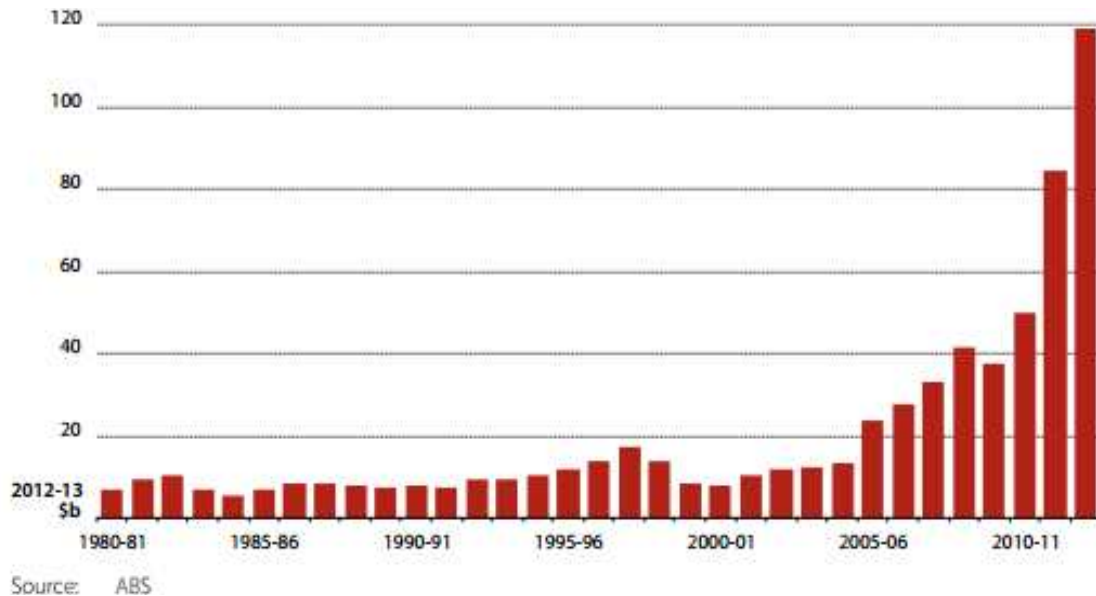
- 호주 광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과 자본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
 - * 2013년 1분기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2.5%이며, 광업의 성장기여도는 0.8%로 주요 산업 중 가장 높음(호주 통계청).
- 호주 광업의 주요 변수는 아시아 지역 수요와 호주달러 환율 변동
 - * 호주연방준비은행(RBA)이 2013년 5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호주달러는 미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내고 있음.

○ 호주 광업부문 현황

- 광업 및 관련 서비스는 호주 전체 상품 수출의 83%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일본, 한국 등
- 2012년 국제 광물가격의 하락세에도 호주 광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호주 광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 10년간의 국제 광물수요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LNG, 석탄, 철광석에 집중되어 향후 수년 내에 해당 광물의 생산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

<연도별 호주 광산업 투자금액>

(단위: 십억 A\$)



- 호주는 풍부한 자원매장량, 정치·경제적 안정성,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개발 기술력으로 국제 자원시장에서의 위상 확립
 - 광물자원 무기화, 자원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호주는 2005년 외국인 광산 지분비율 제한을 삭제하는 등 외국자본에 우호적인 정책을 통해 막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호주는 광물생산에 필요한 탐사, 분석·개발, 환경·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 규모도 2010/11 회계연도 기준 A\$91억을 차지함. 더불어 관련 기술개발 투자도 호주 광업의 경쟁력 유지에 큰 역할을 함.
 -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치·경제적 안정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건실한 경제 하부구조로 자원개발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이 가능
- * 2012년 세계경제포럼(WEF) 부패지수 조사에서 호주는 캐나다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함.

□ 한국과의 자원교역 현황

- 2012년 對호주 광산물 수입 실적은 US\$149억 규모
 - 이는 전년대비 14.6% 감소한 수치이나 광산물 수입국별 비중에서 1/3 이상을 점유
 - 철광(66.4%), 유연탄(41.1%) 등 주요 광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한국의 對호주 광산물 수입현황>

(단위: Kg, Mt, 천 US\$)

광종	단위	2011년			2012년		
		중량	금액	비중	중량	금액	비중
금	Kg	6,983	342,281	21.2	4,308	229,826	15.7
은	Kg	4,991	4,591	0.8	16	22	0.0
동광	Mt*	258,459	1,258,764	22.3	200,369	892,615	19.5
연광	Mt	129,513	564,025	38.7	118,362	451,861	24.8
아연광	Mt	410,141	241,297	16.1	428,440	237,913	17.1
철광	Mt	44,099,267	7,567,117	66.5	46,124,279	6,325,479	66.4
망간광	Mt	878,484	244,680	66.4	606,641	146,436	50.0
티타늄광	Mt	16,979	19,868	30.0	29,267	54,484	49.4
질코늄광	Mt	17,686	34,433	89.5	8,517	21,496	72.6
알루미늄광	Mt	340,987	18,226	68.7	357,162	19,231	70.8
활석	Mt	6	8	0.0	26	40	0.1
고령토	Mt	4,030	607	0.8	3,949	579	0.8
규사	Mt	535,304	24,547	40.8	409,210	19,974	37.7
마그네사이트	Mt	845	192	0.2	0	0	0.0
금강석	Kg	2	217	0.3	0	4	0.0
무연탄	Mt	2,934,459	681,353	38.4	2,915,751	504,859	37.1
유연탄	Mt	40,152,428	6,309,555	39.3	42,012,044	5,850,199	41.1
기타석탄	Mt	1,664,306	202,918	46.6	837,044	101,103	32.9
갈탄	Mt	46	43	7.1	60	58	9.6
우라늄	Kg	303	543	0.1	51,320	103,575	14.2
총 계	Mt	91,443,820	17,516,133	48	94,051,205	14,959,853	34

* Mt(메가톤) : 백만 톤

자료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3)

2. 부존자원 규모

□ 주요 자원 매장량

○ 호주의 주요자원 매장량

- Geoscience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는 300개 이상의 광산에서 약 22종의 광물을 생산하며 갈탄, 납, 금, 홍석, 지르콘, 니켈, 은, 아연, 우라늄의 경제적 매장량(EDR·이하 EDR 기준)은 세계 최대 규모
- 안티몬, 보크사이트, 역청탄, 구리, 금, 산업용 다이아몬드, 철광석, 일메나이트, 리튬, 망간광석, 니오브, 탄탈럼, 텅스텐, 바나듐 등의 매장량도 세계 6위권 이내
- 역청탄은 438억 톤(세계 매장량의 7%)이 매장된 세계 5위 보유국
- 전 세계 석탄 교역의 1/3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1위 석탄 수출국으로 주요 매장지역은 동부의 Queensland주(58%), New South Wales주(38%)
- 우라늄은 RAR¹⁾ 16억 700만 톤으로 세계 RAR의 30.9% 이상을 차지하여 매장량 1위
- 원유, 천연가스(LNG) 등 주요 에너지자원도 풍부하게 보유. 원유는 42억 배럴로 세계 총 매장량의 0.3%를 차지하며 천연가스는 아태 지역 최대 수준인 약 100 Tcf²⁾로 세계 총 매장량의 2%를 차지
- 그 외에 다이아몬드, 금, 은 등의 자원도 세계 선두권으로 호주는 '광물자원의 보고(寶庫)'로 불릴 만함.

1) Reasonable Assured Resources의 약자로 Kg당 US\$80의 비용으로 회수 가능한 자원이며,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확정 매장량을 의미

2) Trillion cubic feet의 약자로 1조 입방피트 부피에 해당

<호주 주요 광물 매장량>

광종	단위	호주(A)	세계(B)	A/B(%)	세계 순위
유연탄	백만톤	76,400	860,938	8.9	4위
우라늄	톤	1,670,000	5,404,000	30.9	1위
원유	억배럴	42	14000	0.3	24위
천연가스	Tcf	100	5000	2	12위
역청탄	기가톤	43.8	669	7	5위
갈탄	기가톤	37.1	148	25	1위
철광석	백만톤	35,000	170,000	20.6	1위
동	천톤	86,000	690,000	12.5	3위
아연	천톤	56,000	250,000	22.4	1위
연	천톤	29,000	85,000	34.1	1위
니켈	천톤	24,000	80,000	30.0	1위
탄탈륨	천톤	51	120	42.5	2위
질코늄	천톤	21,000	52,000	40.4	1위
금	톤	7,400	51,000	14.5	1위
보크사이트	백만톤	6,200	29,000	21.4	2위
코발트	천톤	1,400	7,500	18.7	2위
티타늄*	천톤	100,000	650,000	15.4	2위
카드뮴	천톤	61	640	9.5	3위
희토류	천톤	1,600	110,000	1.5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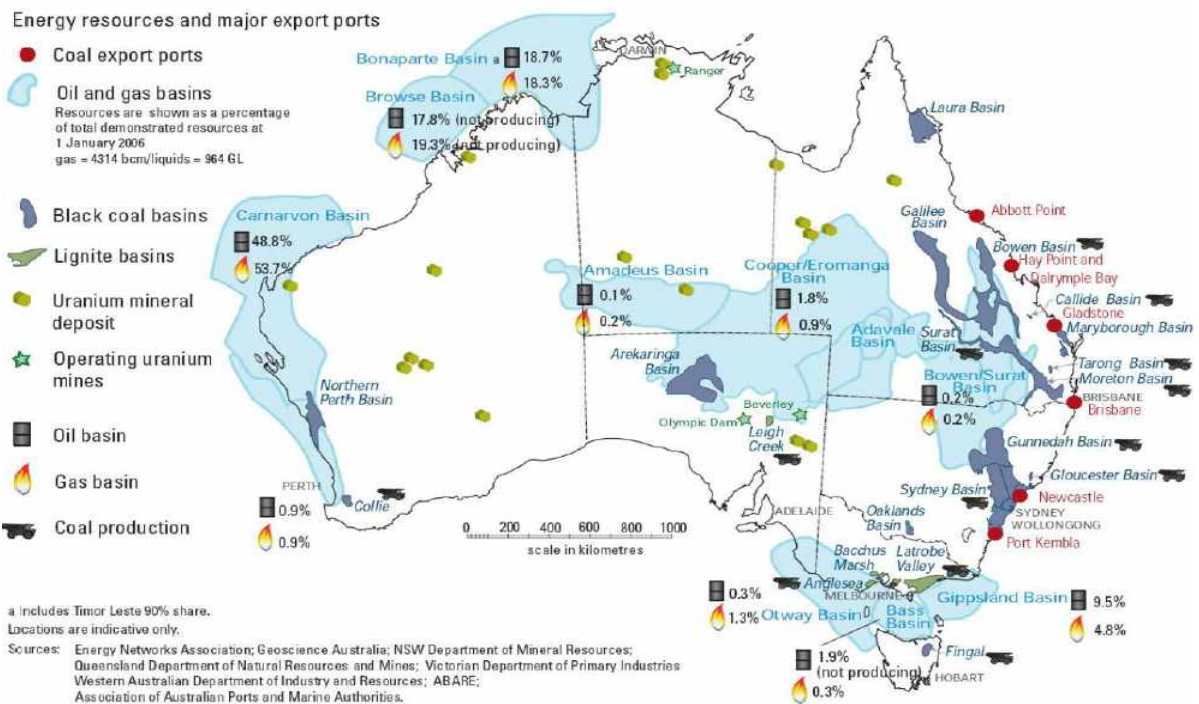
* 티타늄 : Ilmenite 기준

자료원: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201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2.6)/CIA fact book/Australia Mineral Resources(2010)

○ 지역별 주요 광물자원 현황

- Queensland주는 석탄과 알루미늄, 납, 은이 주로 분포
- Western Australia주는 호주 지하자원의 보고로 철광석과 LNG, 석유 미네랄샌드, 리튬, 아모니아, 금 등 각종 광물을 개발 중
- New South Wales주는 석탄이 풍부

<호주의 주요 에너지자원 매장지역 및 수출항>



□ 주요 자원별 현황

○ 원유(Petroleum)

- 원유 매장량은 42억(세일오일 제외) 배럴로 세계 매장량의 0.3%를 차지하며 주요 매장지역은 South Australia주 Bass Strait(18억 배럴), Western Australia주 Carnarvon Basin(11억 배럴)
- 호주 4대 수출 품목으로 총 수출의 4.2%(연 A\$50억)를 차지하고 주요 수출국은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

○ 천연가스(LNG)

- 세계적인 LNG 보유국으로 매장량이 아태 지역 최대 수준인 약 100 Tcf로 세계 총 매장량의 2%를 차지하고, 현 생산량을 기준으로 100년 이상 공급이 가능한 양을 보유

- 주요 매장지역은 Western Australia주 North West Shelf(40 Tcf), New South Wales주 Cooper/Bass Basin(10 Tcf) 등이며 향후 탐사를 통해 추가 발굴 가능한 잠재 보유량도 50~170 Tcf 존재
- LNG 수출은 연 A\$24억으로 주로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일본 지역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 중국, 한국 등으로 수출 대상지역을 다변화하는 추세
- 2012년에 Northern Territory주 Darwin 지역에 A\$340억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합작투자 형태로 2016년까지 연 8억 4,000만 톤의 LNG를 생산할 계획
- 현재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4위의 LNG 공급국이나 2017~2018년에는 세계 최대 LNG 공급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석탄(Coal)

- 세계 총 매장량의 8.3%에 해당하는 약 821억 톤의 석탄 매장량 (향후 230여년 채굴 가능)을 보유
- 총수출의 10%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한국, 인도 등 특히 한국은 석탄 총수입의 약 40%를 호주에 의존
- 연간 2.7억 톤을 생산하는 세계 4위 생산국(세계 총 생산량의 7%) 이자 세계 1위 석탄 수출국으로 세계 석탄 교역의 32%를 차지
- 탄종 별로는 제철용탄(Coking coal)이 세계 총수출의 50% 이상, 발전용탄(Thermal coal)이 세계 총수출의 21%를 점유

○ 우라늄(Uranium)

- 세계 총 매장량의 30.9% 수준인 RAR 16억 700만 톤을 보유한 세계 최대 매장국
- 주요 6개 우라늄 광산으로는 올림픽 댐(South Australia주, 세계 최대 매장지), Alligator강 주변의 Ranger, Jabiluka, Koongarra(Northern Territory주), Kintyre, Yeelirrie(Western Australia주)

○ 니켈

- 세계 매장량의 30%인 2,400만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생산량은 연간 약 19만 톤
- Western Australia주의 Ravensthorpe, Tasmania주의 Avebury에서 신규 생산이 진행되면서 Murrin Murrin의 생산 부진을 상쇄

○ 구리

- 칠레(23%), 페루(14%)에 이어 세계 매장량의 13%에 해당하는 84 메가톤의 구리가 매장되어 있음.
- 2011년에는 Queensland주 Mount Isa 지역을 중심으로 약 94만 톤이 생산되어 전년대비 14.9%의 증가 기록

○ 아연

- 세계 1위 아연 매장국으로 전체 매장량의 22.4%인 5,600만 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아연 생산량이 140만 톤에 달함.
- 현재 진행 중인 George Fisher, Dugald River, Black Star 지역의 프로젝트 결과 2014년에는 생산량이 18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나, 2015년 이후에는 Minmetals사의 Century 광산 운영이 중단되면서 아연 생산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철광석

- 세계 매장량의 20.5%인 350억 톤을 보유하며 매장량의 90% 이상이 Western Australia주에 분포
- 2011년 생산량은 4억 4,000만 톤으로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생산국이며 계속 증가하여 2016년에 7억 5,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금

- 7,400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14.5%에 해당
- 전국적으로 금광이 산재해 있으며 대부분 노천 채굴법으로 생산
- 주요 매장지역은 South Australia주의 Olympic Dam, New South Wales주의 Cadia East와 Western Australia주의 Boddington, Telfer 지역으로 호주 전체 매장량의 50% 정도를 차지

○ 망간

-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망간 생산국으로 Bootu Creek 탄광, Groote Eylandt 탄광, the Woodie Woodie 탄광에서 주로 생산
- 2011년 매장량은 1억 1,000만 톤에 달하며 생산량은 약 240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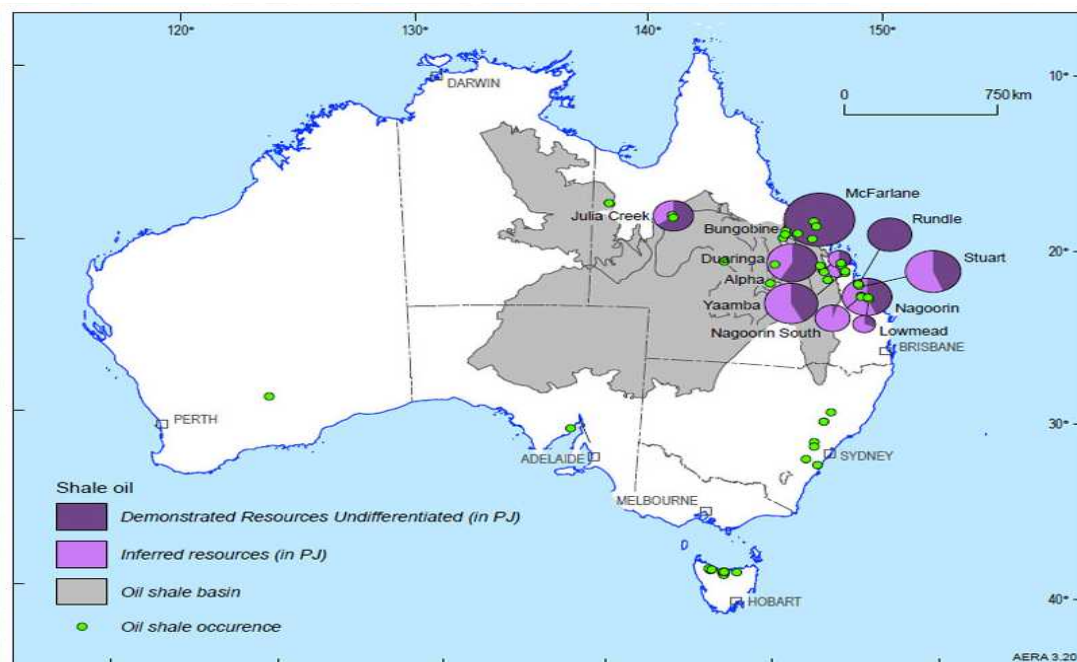
○ 희토류 금속

- 중국, CIS,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희소금속 매장량 보유
- 2011년 기준 160만 메트릭톤 규모로 세계 전체 매장량 1억 1,000만 메트릭톤의 1.4%를 차지
- 2012년 현재 호주에서 생산되는 희소금속은 없지만, 희소금속이 매장된 Western Australia주에 Mount Weld Concentration Plant가 완공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희소금속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검사(Feasibility study)를 시행한 상태

○ 셰일오일(Shale Oil)

- 본래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채굴 비용이 높아 외면당했던 셰일 오일과 셰일가스가 최근 고유가와 기술 개발로 인한 굴착비용의 하락으로 주목받고 있음.
- Arckaringa 지역에서 최근 발견된 셰일오일로 인해 2013년 1월 24일 기준으로 셰일오일을 포함한 호주의 석유 매장량은 2,330억 배럴로 세계 1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로 부상
- 세계적인 자원 컨설팅 업체 Wood Mackenzie Ltd는 현재 호주 현지의 장비 부족과 높은 인건비 및 인프라 비용으로 인해 셰일 오일의 본격적인 생산에는 약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호주의 잠재적 셰일오일 매장지>



자료원: Geoscience Australia

○ 셰일가스(Shale Gas)

- 미국에너지관리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호주 내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한 셰일가스는 396 Tcf로 세계 6위의 부존량임. 호주연방과학산업기구(CSIRO)는 Tasmania주를 제외한 전국토에 걸쳐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호주의 잠재적 셰일가스 매장지>

지역	주	비고
Cooper	QLD SA	예상 매장량: 342 Tcf 면적: 13만km ²
Georgina	QLD NT	-
Galilee	QLD	1900년대, 지하수 시추 중 원유 발견 (35m 깊이의 고른 셰일층)
Bowen	QLD	면적: 16만km ² 최대 10,000m 두께의 셰일층 보유
Sydney Basin	NSW	면적: 64,000km ²
Canning	WA	면적: 47만km ² 산업 활동이 거의 없고, 낮은 인구밀도에 기존 인프라와 거리가 있어 대량투자 필요
Onshore Perth Basin	WA	면적: 32,000km ²
Beetaloo Sub-Basin	NT	3,000m 이상 두께의 셰일층 보유 현재 사용 중인 파이프라인의 확장 필요
McArthur Basin	NT	셰일가스 채굴활동은 전무하나, 셰일오일과 가스의 존재가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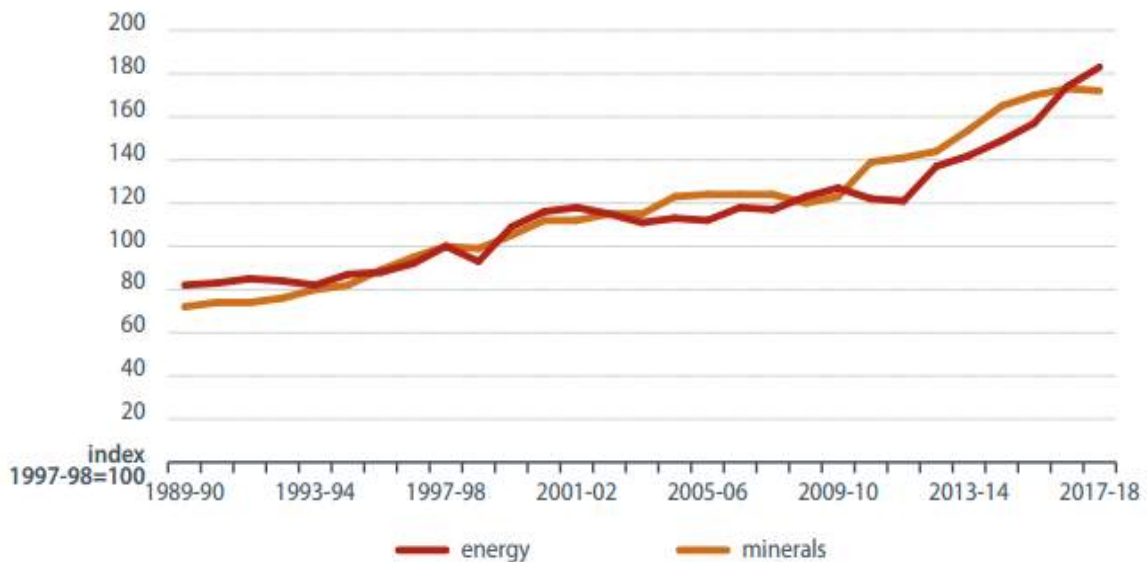
자료원: 호주연방과학산업기구(CSIRO)

- 2012년 10월 Santos사가 호주 최초로 셰일가스의 상업적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 동 사는 Cooper 분지에서 2004년부터 탐사를 시작, Moomba-191 가스정에서 270만 cf/d(Cubic feet per Day) 수준의 초기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광물 및 에너지자원 생산량

- 광물 및 에너지자원 생산은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 중
 - 광물자원의 경우 철광석 수요증가가 전체 생산량 증가를 견인
 - 에너지자원의 경우 우라늄과 유연탄의 생산 증가가 전체 생산량 증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광물 및 에너지자원의 수출은 2010~2011년 기준으로 5% 증가. 이는 광물의 경우 전체 생산의 약 60%, 에너지자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해외수요 증가와 생산량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호주의 에너지 및 광물 생산 추이>



자료원: BRE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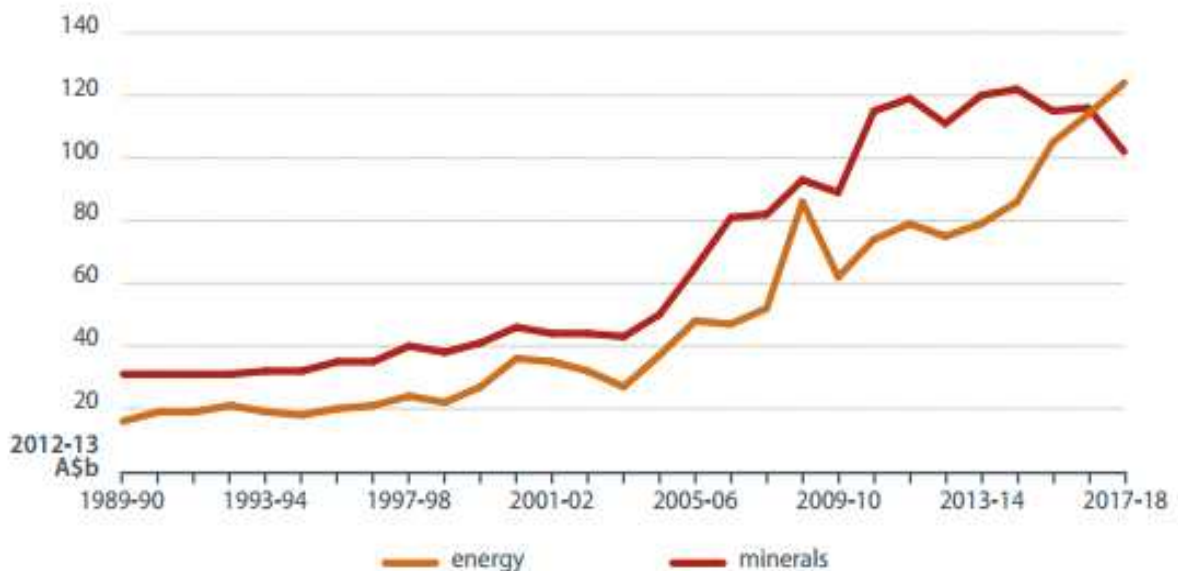
□ 광물 및 에너지자원 수출동향

○ 최근 수출량은 소폭 감소

- 2012~2013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수출액은 A\$1,860억으로 전년 대비 6% 감소
- 수출액 감소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영향을 미쳤으나 석탄과 LNG 그리고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일부 상쇄됨.
- 광물 및 에너지자원의 수출액은 국제 시장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산량 증가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됨.

<호주의 광물 및 에너지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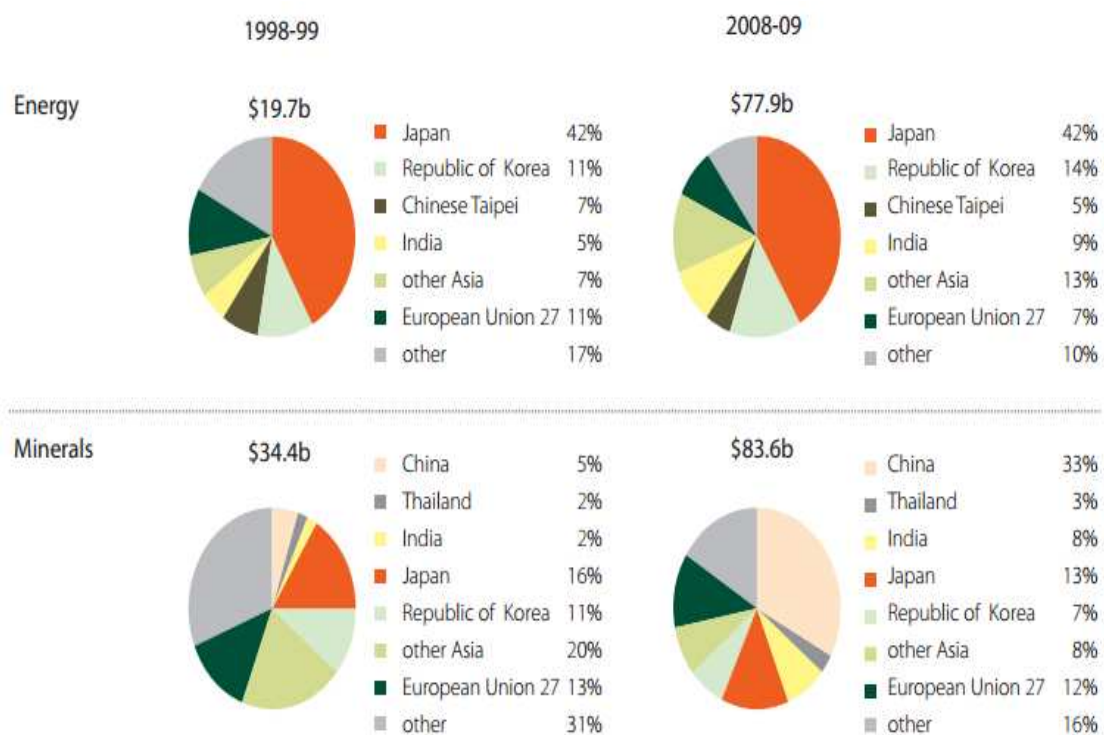
(단위: 십억 A\$)



자료원: BREE 2013

- 주요 광물 및 에너지 수출지역
 - 광물 수출대상국은 중국(33%), 일본(13%), 한국(7%) 및 EU국가(12%)에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은 1998년 5%에서 2008년 33%로 크게 증가
 - 에너지자원 수출대상국은 일본(42%), 한국(14%), EU(7%)순

<호주 주요 광물 및 에너지 수출 현황(수출지역별)>



자료원: Minerals Council of Australia(2010.3)

II

자원개발 현황

1. 개발 및 생산동향

□ 진행 프로젝트

○ 지역별 개발단계 프로젝트

- 에너지자원 및 광물 개발단계(Advanced) 프로젝트는 호주 전역에 걸쳐 진행되며 에너지자원은 Queensland주와 Northern Territory주, 광물개발은 Western Australia주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음.
- 2012년 4월 기준 지출금액은 A\$2,608억이며 이는 2011년 10월 보다 12%, 2011년 4월에 비해서는 34% 증가한 수치
- 광물 및 에너지자원 개발단계 프로젝트 금액 증가는 LNG 개발 계획과 철광석 광산 확장에 주로 기인함.
- 2011년 기준 광산업 개발을 위한 탐사비용은 석유, 철광석, 석탄, 금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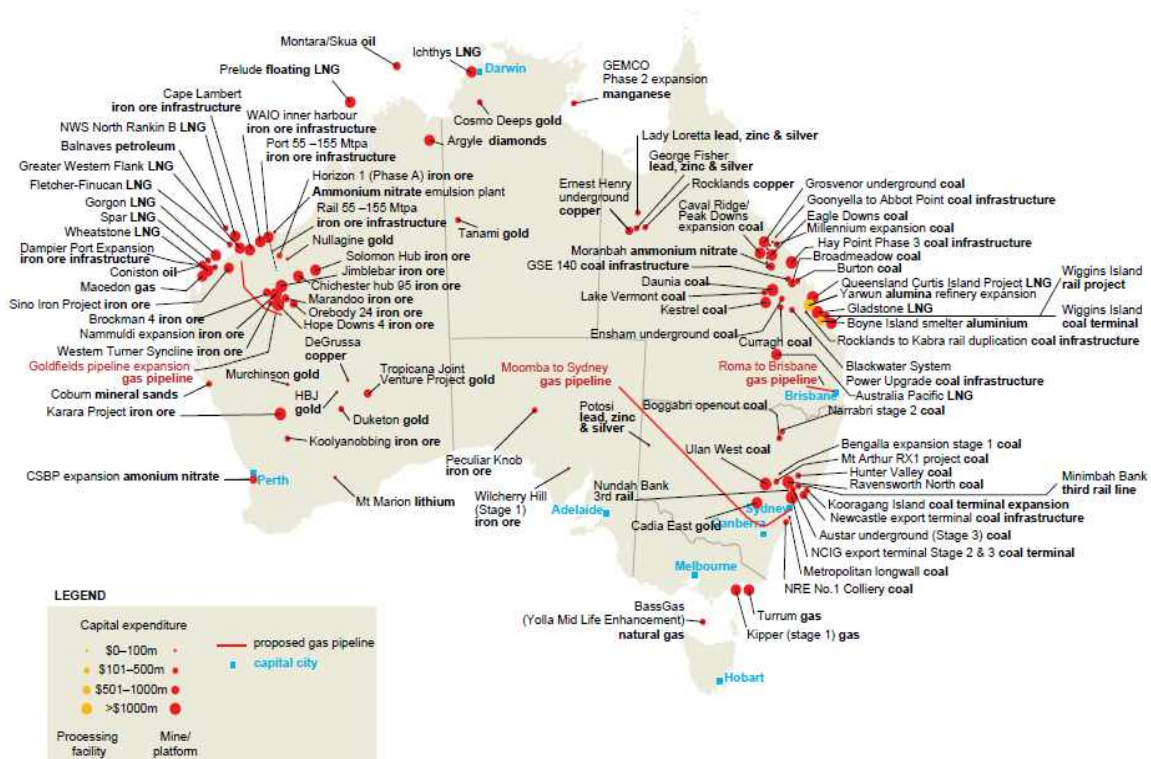
<호주 지역별 개발단계(Advanced) 프로젝트>

(단위: 개, 백만 A\$)

주	에너지자원 개발		광산개발		기간시설 개발		자원 가공		총계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NSW	10	4,419	2	1,958	6	2,670			18	9,047
VIC	2	4,412							2	4,416
QLD	14	62,310	6	2,475	7	7,540	2	2,940	29	75,323
WA	10	19,818	25	29,139	6	14,375			41	135,414
SA			2	1,361					2	1,365
TAS	1	460							1	432
NT	2	34,020	3	724					5	34,754
합계	39	197,439	38	35,657	19	24,736	2	2,940	98	260,770

자료원: BREE 2012

<호주 전역 개발단계 주요 광산 분포>



자료원: Bureau of Resources and Energy Economics(2012.4월)/Energy Networks Association

○ 지역별 탐사단계 프로젝트

- 2012년 4월 기준 정부허가 및 투자결정 등을 남겨두고 있는 탐사 단계(Less Advanced)에 있는 프로젝트는 총 401건
- 에너지자원 탐사계획은 Queensland주와 New South Wales주에 집중되어 있음.
- 탐사계획의 경우 해외수요의 변화에 민감한 편이며 상황에 따라 개발계획의 시행시기 또한 유동적인 경우가 많음.

<호주 지역별 탐사단계 프로젝트>

(단위: 개, 백만 A\$)

주	에너지 개발	광산 개발	총계
NSW	28	56	84
VIC	2	5	7
QLD	57	101	158
WA	10	94	104
SA	1	16	17
TAS	0	4	4
NT	8	19	27
합계	106	295	401
합계 금액	93,499	243,287	336,786

자료원: BREE 2012

- 주요 광산 개발 프로젝트 현황
 - 현지 광산 신규개발은 철광석과 석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에 금속 및 비금속계 광산개발 및 우라늄, 다이아몬드 등의 광산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주요 프로젝트 상세내용은 아래 표 참고

<주요 광물 및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리스트>

프로젝트	주관사	주	종류	매장량	단위	광종	비용 (백만 A\$)
Abbot Point Coal T0	Adani	QLD	Expansion	35,000	ktpa	Black coal	750
Abbot Point Coal T2	BHP Billiton	QLD	Expansion	60,000	ktpa	Black coal	1,500-2,500
Abbot Point Coal T3 (Alpha Coal Project)	GVK	QLD	Expansion	60,000	ktpa	Black coal	n/a
AlphaCoalProject	GVK / Hancock Coal	QLD	New Project	30	Mt	Thermal coal	10,000
Ammonium nitrate emulsion plant	Incitec Pivot	WA	New Project	100	kt	Ammonium nitrate	40
Anduramba Molybdenum	Archer Resources	QLD	New Project	950	t	Molybdenum	0-250
Andy Well	DorayMinerals	WA	New Project	74,000	oz	Gold	55
Anketell Point port	Fortescue Metals Group / MCC / Aquila	WA	New Project	350,000	ktpa	Iron Ore	4,000
Aphrodite	Aphrodite	WA	New Project	84,000	oz	Gold	244
Appin Area 9	BHP Billiton	NSW	Expansion	3.5	Mt	coking coal	820
Arcadia-Golden Triangle	Bandanna Energy	QLD	New Project	n/a		Thermal coal	500-1,000
Arcturus-Golden Triangle	Bandanna Energy	QLD	New Project	5	Mt	Thermal coal	795
Argyle underground development (diamond)	Rio Tinto	WA	Expansion			Diamond	1,550
Arrow Bowen Pipeline	Arrow Energy	QLD	New Project	50	PJ pa	Gas	1,000
Arrow LNG Plant (trains 1&2)	Shell / Petro China	QLD	New Project	8	Mt	LNG	24,000
Arrow LNG Plant (trains 3&4)	Shell / Petro China	QLD	expansion	10	Mt	LNG	5,000+
Arrow Surat Pipeline	Arrow Energy	QLD	New Project	360	PJ pa	Gas	600
Aurora Bauxite Mine	Bauxite Resources / Yankuang Corporation	WA	New Project	2,000	kt	Bauxite	0-250
Austar underground (stage 3)	Yancoal Australia (100%)	NSW	Expansion	3.6	Mt	Coking (ROM)	250
Australia Pacific LNG	Origin / ConocoPhillips / Sinopec	QLD	New Project	9	Mt	LNG	23,000

BAJV Alumina Refinery	Bauxite Resources / Yankuang Corporation	WA	New Project	1,100	kt	Alumina	1,000-1,500
Balaclava Island coal terminal	Xstrata	QLD	New Project	35,000	ktpa	Black coal	1,500
Balla Balla project (phase I)	Forge Resources	WA	New Project	6,000	kt	Magnetite	1,000
Balla Balla project (phase II)	Forge Resources / Todd Capital	WA	New Project	4,000	kt	Magnetite	500-1,000
Balla Balla slurry pipe and port infrastructure	Forge Resources	WA	New Project	6,000	ktpa	Iron Ore	310
Balmoral South magnetite project (stage 1)	Australasian Resources	WA	New Project	12,000	kt	Magnetite	3,300
Balmoral South magnetite project (stage 2)	Australasian Resources	WA	Expansion	12,000	kt	Magnetite	2,500-5,000
Balnaves Development Project	Apache Energy / KUFPEC	WA	New Project	30	kbpd	Oil	429
Balranald Project	Iluka Resources	NSW	New Project	n/a		Mineral sands	0-250
Baralaba expansion	Cockatoo Coal	QLD	Expansion	3.5	Mt	PCI and thermal	413
BaralabaSouth	Cockatoo Coal	QLD	Expansion	4	Mt	PCI and thermal	300
BarnesHill	ProtoResources and Investments / Metals Finance	TAS	New Project	4.1	kt	Nickel-Cobalt	70
Barrambie vanadium project	Reed Resources	WA	New Project	6.3	kt	Ferro-Vanadium	250-500
Bass Gas (Yolla Mid Life Enhancement)	Origin / AWE / Calenergy Gas	TAS	Expansion	n/a		Gas	490
Bauxite Hills	Cape Alumina	QLD	New Project	5,000	kt	Bauxite	0-250
Belvedere underground	Aquila / Vale	QLD	New Project	7	Mt	Coking coal	2,814
Bengalla expansion (stage 1)	Wesfarmers / Rio Tinto	NSW	Expansion	1.5	Mt	Thermal coal	141
Bengalla expansion (stage 2)	Wesfarmers / Rio Tinto	NSW	Expansion	1.4	Mt	Thermal coal	180

Big Hill Tungsten Project	Hazelwood Resources	WA	New Project	6	kt	Tungsten	0-250
Bigrlyi	Energy Metals / Paladin / Southern Cross Exploration	NT	new mine	600	t	U3O8	270
Blackwater System Power upgrade	QR National	QLD	Expansion	9,000	ktpa	Black coal	195
Boggabri opencut	Idemitsu Kosan	NSW	Expansion	3.5	Mt	Thermal coal	500
Bonaparte Floating LNG	Santos / GDF Suez		New Project	3	Mt	LNG	5,000+
Bowden's Project	Kingsgate	NSW	New Project	3-4	Mtpa throughput	Silver ore	0-250
Bowen Gas Project	Arrow Energy	QLD	New Project	n/a		Gas	250-500
Boyne Island Smelters Major Sustaining Projects	Rio Tinto Alcan	QLD	Expansion	n/a		Aluminium	685
Broadmeadow (mine life extension)	BHP Billiton Mitsubishi Alliance	QLD	Expansion	0.4	Mt	Coking coal	874
Browse LNG	Woodside Energy / BP / BHP Billiton / Shell	WA	New Project	12	Mt	LNG	36,000
Buckland Project	Iron Ore Holdings	WA	New Project	8,000	kt	Hematite	250-500
Bullabulling	Bullabulling Gold	WA	Redevelopment	200,000	oz	Gold	333
Bundi Coal Project	MetroCoal	QLD	New Project	5	Mt	Thermal coal	994
Burrup ammonium nitrate plant	Orica / Yarra / Apache	WA	New Project	330	kt	Aluminium nitrate	775
Burton	Peabody Energy	QLD	Expansion	2.5	Mt	Coking coal	300
Byerwen Coal Project	QCoal / JFE	QLD	New Project	10	Mt	Coking coal	1,591

자료원: Bureau of Resources and Energy Economics(2013)

□ 현지 주요기업 개발 추이

○ BHP

- 시장점유율 18%의 호주 최대 광산기업이며 알루미늄, 철, 구리, 다이아몬드, 은 등 광물과 원유, 가스 등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음.
- 세계 최대수준의 철광석 생산업체이며 생산의 50% 이상이 호주에서 이루어짐.
- 니켈 및 코발트 등의 채굴 및 제련 시설에도 투자하고 있음.
- 중국의 철광석 및 석탄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광물의 생산증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2010~2011년 Queensland주 홍수로 인해 여의치 않음.

<BHP사 최근 경영실적>

BHP Billiton Limited – financial performance

Year	Revenue (\$ billion)	(% change)	EBIT (\$ billion)	(% change)	Sales* (\$ billion)	Employees
2007-08	75.1	49.9	30.0	46.0	N/C	41,732
2008-09	59.7	-20.5	14.2	-52.7	N/C	40,990
2009-10	50.5	-15.4	18.9	33.1	N/C	39,570
2010-11	71.4	41.4	31.3	65.6	39.8	40,757
2011-12	72.2	1.1	23.4	-25.2	40.4	46,370
2012-13**	67.0	-7.2	N/C	N/C	42.1	N/C

*Sales relates to Australian production **Estimate

SOURCE: ANNUAL REPORT AND IBISWORLD

○ Rio Tinto

- 시장점유율 15.4%를 보유한 2위 업체로 주로 철광석, 알루미늄, 석탄 및 귀금속류를 개발하고 있음.
-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이며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다이아몬드, 기타 광물을 중점으로 개발
- 에너지 부분에서는 석탄과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음.

- 2013년 4월 동 사 CEO에 따르면 2012년 최대 규모의 투자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핵심 개발 사업영역을 제외한 비핵심 영역에 대한 정리를 진행할 것이라 함.

<Rio Tinto사 최근 경영실적>

Rio Tinto Limited – financial performance

Year*	Revenue (\$ billion)	(% change)	EBIT (\$ billion)	(% change)	Sales*** (\$ billion)	Employees
2008	61.0	41.2	11.9	-19.6	N/C	20,346
2009	43.5	-28.7	8.2	-31.1	N/C	19,892
2010	55.6	27.8	20.8	153.7	N/C	18,722
2011	59.9	7.7	13.4	-35.6	35.0	20,875
2012**	51.2	-14.5	N/C	N/C	35.9	N/C
2013**	50.5	-1.4	N/C	N/C	36.0	N/C

*Year end December **Estimate ***Sales relates to Australian production

SOURCE: ANNUAL REPORT AND IBISWORLD

○ Xstrata Holding

- 시장점유율 4.1%, 석탄을 주로 취급했으나 2003년 MIM을 인수하여 구리, 납, 아연 주요 개발업체로 성장
-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며 호주의 여러 주요 광산기업들을 인수하며 성장

<Xstrata Holding사 최근 경영실적>

Xstrata plc (Australian operations) – financial performance

Year*	Revenue (\$ billion)	(% change)	EBIT (\$ billion)	(% change)
2008	10.0	58.9	4.25	80.9
2009	8.3	-17.0	2.62	-38.4
2010	9.9	19.3	3.23	23.3
2011	11.0	11.1	3.32	2.8
2012**	10.2	-7.3	N/C	N/C
2013**	10.3	1.0	N/C	N/C

*Year end December **Estimate

SOURCE: ANNUAL REPORT AND IBISWORLD

○ Fortescue Metals Group

- 시장점유율 2.9%, Western Australia주 아연광산 독점개발권 보유

○ Woodside Petroleum

- 시장점유율 2.3%, 호주 최대의 석유·가스 거래 상사

○ Anglo American Australia

- 시장점유율 1.9%, 주로 석탄을 개발하며 2002년 Shell사의 호주 석탄사업을 인수하며 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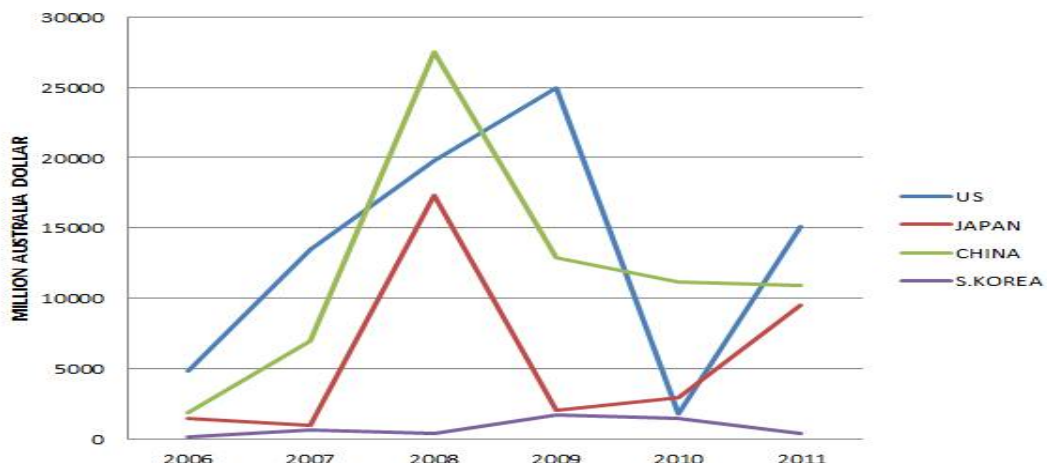
2. 외국기업 투자현황

□ 對호주 외국인투자 동향

- 주요 3국(미국, 중국, 일본)은 2007년 이후 호주 광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크게 늘렸으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소 감소
- 2011년 이후 미국과 일본의 투자규모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중국과 한국의 경우 소폭 감소 추세

<對호주 광산업 외국인투자 금액(승인기준)>

(단위: 백만 A\$)



자료원: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 중국

- 최근 5년간 對호주 투자금액을 크게 늘리며 광업, 원유, 가스 등 원자재에 투자
- 투자비중은 광업 79%, 석유·가스 12%, 재생에너지 5%, 기타 4% 순으로 광업 및 에너지가 대부분
- 중국 투자의 특징은 국영기업 주도 투자가 74%를 차지한다는 점이며 투자건당 A\$5억 이상의 대형투자 비중이 30% 이상

<2012년 개발 완료된 중국의 對호주 주요 투자>

(단위: 백만 US\$)

중국 투자회사	호주회사	주	산업	금액
Petro China	LNG-Woodsie Petroleum	WA	LNG	1,630
State Grid Co.	ElectraNet	SA	송유관	420
Consortium of Chinese	Rio Tinto	VIC	광산	-
Tauras Mineral Ltd	Extract Resources Ltd	WA	광산	-

<2006년-2012년 중국의 對호주 주요 투자>

(단위: 백만 US\$)

중국 투자회사	호주회사	년도	지분	금액
Chinalco	Equinox Minerals Ltd	2011	42%	45,000
Yanzhou Coal mining company (Yancoal Australia)	Felix Resources	2009	100%	3,500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	BG group	2012	-	1,930
PetroChina Company Ltd	Arrow Energy	2010	100%	3,100
Sinopec corp.	Australia Pacific LNG	2011	15%	-
		2012	25%	

자료원: IBIS World

□ 일본

- 1960년대부터 Western Australia주를 중심으로 철광석 투자를 시작했으며 해당 지역의 광산붐은 상호보완적인 양국 관계 구축에 기여
- 호주의 광산물 수출대상국으로 일본은 2012~2013년 기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22%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A\$364억
- 2011년에는 대형 투자기관 JBIC(The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가 Western Australia 주정부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광업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음.

<일본의 對호주 주요 광업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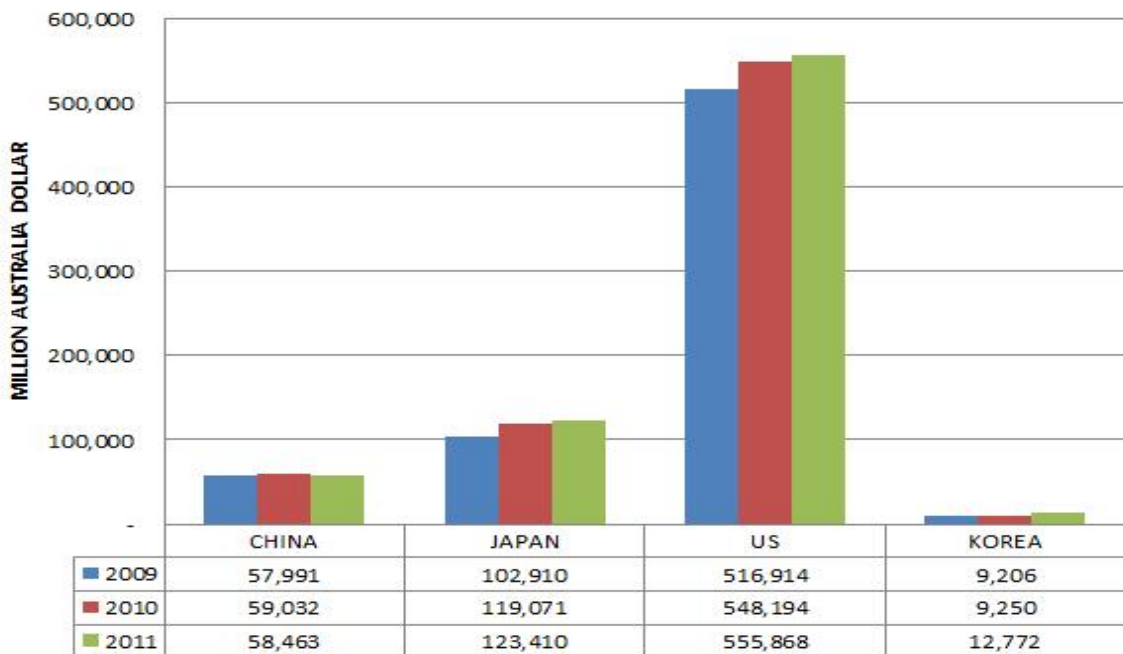
(단위: 십억 A\$, %)

이름	생산품목	합작사	투자총액	일본 지분
The Ichthys	LNG	INPEX	34	24
Worsley Refinery	Alumina	BHP Billiton	3.6	-
Gorgon	LNG	Chell / Chevron / ExxonMobil	43	-

자료원: Bureau of Resources and Energy Economics

<對호주 외국인투자 국가별 통계>

(단위: 백만 A\$)



자료원: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2)

□ 미국

- 투자액 1위 국가로 광산업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있음.
- 미국에 본사를 둔 GE Mining Co. 호주·뉴질랜드 법인은 2013년 1월 광산설비 제조업체인 Industree Ltd를 인수함.
- 이에 앞서 2012년 11월 동 사는 호주 최대 규모의 기술개발센터를 Western Australia주 수도인 Perth에 개관하였음. 동 연구센터는 호주 연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성사됨.
- 미국은 광산에 대한 직접투자 뿐 아니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탐사 및 채굴 등 고부가가치를 가지는 서비스 분야에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음.

3. 우리기업 투자현황

□ 한국

○ 광업 투자금액은 증가 추세

- 對호주 투자 건수는 2008년의 136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투자금액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광업 투자가 전체 투자금액 중 80.7%의 비중을 차지
- * 2012년 한국의 對호주 광업 투자금액 : US\$35.6억(신고기준)

<한국의 對호주 투자동향>

(단위: 건, 천 US\$)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총계	1,370	584	14,450,282	6,143,164
1980-1999	356	179	2,256,530	475,976
2000	41	26	123,078	58,056
2001	30	18	11,607	10,608
2002	29	17	54,910	62,656
2003	44	18	186,775	49,982
2004	41	23	79,738	54,021
2005	72	46	132,558	104,711
2006	78	49	187,897	142,781
2007	117	54	155,062	119,934
2008	136	56	650,711	579,235
2009	127	34	1,246,186	235,865
2010	100	34	764,173	562,795
2011	87	32	4,114,669	1,352,607
2012	78	23	4,406,856	2,195,793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주요 진출기업 개황

- 호주 진출기업은 광산개발 등 자원개발 분야에 집중되며 그 외의 산업분야 투자도 확장 중

<對호주 투자 주요 한국기업>

자원개발기업	포스코, 한전, 한국광물자원공사, SK 에너지
현지판매법인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대한전선, LS전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서비스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외환은행, 한국관광공사

○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활발

- 우리의 호주 광산업 관련 투자는 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활발하게 참여

<한국의 호주 광물자원 투자 현황>

(단위: %, 천 US\$)

광종	단계	사업명	진출	참여업체	지분	누적투자
유연탄	탐사	바이롱	2010	한전	100	427,929
		반다나	2009	삼탄	10	39,878
		아데나	2006	광물자원공사	4	1,728
		타로보라	2007	광물자원공사, SK네트웍스	100	375
	개발	와이웅	1995	광물자원공사, SK네트웍스, 경동	95	58,518
		토가라노스	1994	광물자원공사, 효성상사, 동부건설	25	21,793
	생산	글레니스크릭-II	2005	포스코	6	8,817
		나라브리	2009	대우Int'l, 광물자원공사	7.5	152,911
		뉴팩	2007	포스코	10	20,277
		드레이톤	1979	대성산업, 현대상사	5	55,324
		마운트쏘리	1980	포스코	20	62,633

		맥아더	2008	포스코	7	414,258
		물라벤	2008	광물자원공사, 한전, 한화, 남동· 중부·남부·서부발전	10	135,933
		미네르바	2006	광물자원공사	4	7,595
		샤본	1995	SK네트웍스	5	8,701
		스프링베일	1991	SK네트웍스, 광물자원공사	50	135,499
		앙구스플레이스	2007	광물자원공사, SK네트웍스	50	53,514
		엔삼	1991	LG상사	15	96,403
		카보로우다운즈	2005	포스코	5	16,346
		코카투	2006	포스코, SK네트웍스, 광물자원공사, 동서발전, 한전	27.8	111,517
		클라렌스	1990	SK네트웍스	15	36,711
		폭스리	2005	포스코	20	38,250
우라늄	탐사	마리	2008	광물자원공사, 대우Int'l, LG상사	50	4,551
		MKY(칼라보나)	2008	SK네트웍스	14.1	1,934
철	탐사	로이힐1	2010	포스코, STX, STX에너지	5	299,199
	개발	API	2010	포스코	24.5	44,996
	생산	잭힐스	2006	포스코	13.9 1	16,906
		POSMAC	2002	포스코	20	9,848
동	탐사	볼리아	2009	광물자원공사, 한화, 고려아연	100	4,818
		툼바웨스트	2010	SK네트웍스	100	2,629
아연	생산	마운트가넷	2005	고려아연	3.7	38,207
		타운스빌	1997	고려아연	100	511,056
니켈	탐사	화이트클리프	2008	광물자원공사, 대우Int'l	50	2,844
마그네 사이트	탐사	록햄튼	2006	경동	100	1,677
		말보로	2007	경동	100	261
암염	개발	레이크맥레오드	1996	한주, 휴광 중	49	1,500
합 계						2,845,336

자료원: 한국광물자원공사(2011.12)

III

자원개발 관련제도

1. 호주 정부정책

□ 자원개발 관련 정책기조

- 호주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고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이 큰 에너지·광물자원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래의 정책방향을 수립함.
 - 토지, 노동력, 자본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효율성 증대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제경쟁력 강화 및 투자장벽 철폐
 - 고급 기술인력 양성
 - 시장경쟁의 효율성 향상
 - 노동력 활용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등 정부기관 간 업무중복 방지
 - 자원산업의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신기술 도입 및 활용 권장
- 상기와 같은 호주 에너지·광물자원 정책은 투자유치 정책, 경쟁력 향상정책, 경제성 증대정책, 환경친화 정책, 세계화 정책으로 구분
 - 투자유치 정책 : 기존 투자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도모
 - 경쟁력 향상정책 : 조세제도 및 노사관계 개선, 산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 경제성 증대정책 : 인프라 설비 투자, R&D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원개발 부가가치 향상

- 환경친화 정책 : 탐사 및 개발 시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학적 발전 추구
- 세계화 정책 : 기존의 자원 수출규제 폐지를 통한 자유무역 기반 확립 및 투자기회 확보
- 또한 연방정부는 2012년 11월, 호주 중장기 에너지자원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에너지 백서 2012 (Energy White Paper 2012)」를 발표
 -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고 신뢰감, 경쟁력 있는 에너지 서비스 제공
 - 자원개발 및 수출 확대
 -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
- 상기 기본방향을 토대로 호주 정부는 보다 안전하고 탄력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
 - 풍부한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와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관련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 자원임대세 및 탄소세 도입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자원 개발을 도모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
 - 기술개발 및 탄소세 도입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은 Clean Energy Future 제도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G20 국제 에너지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에너지 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

□ 주요 자원수입국과의 FTA 추진현황

- 호주 정부는 공식 논의가 중단된 한국,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을 재개하고자 국가 간 협력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국제 자원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한국과는 2004년 8월 30일 자원협력협정 이후 양국 정부 간 공식 협력 창구인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한·호주 FTA는 축산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의 이견으로 인해 지난 2년간 공식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정부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자원협력위원회 등 관련 창구를 통해 다방면으로 자원외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는 2005년 FTA 논의를 시작한 이래 현재 협상이 진행 중
- 주요 투자국인 일본과는 2007년 FT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농산물 분야 등에서 관세철폐 합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아 2012년 6월 16차 협상 이후 답보 상태
- 이외에도 현재 한국(1980)을 비롯한 일본(1985), 중국(1989), 인도네시아(1989), 대만 (1992), 필리핀(1994), 인도(2000), 미국(2003), 멕시코(2005) 등 9개 국가와 정기적으로 고위급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호주 정부의 자원외교 노력

- 호주 정부는 대외 자원협력 확대를 위해 주요국과 양자간·다자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분야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전개하고 있음.
- 호주 총리를 비롯한 통상 장관, 산업자원 장관 등 정부 주요 각료부터 주정부 투자진흥청까지 에너지 수요 국가의 정상 및 주요 인사를 직접 방문, 적극적인 자원 세일즈 활동(안정된 공급 구조, 우수한 품질 관리, 안전한 투자환경 홍보)을 전개
- 수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 대규모 LNG 공급 계약을 이끌어 냈던 하워드 전 총리에 이어 길라드 현 총리도 2010년 6월 부임 이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지속적으로 방문했으며 현재 우라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인도에도 수출 허용 재검토를 추진하는 등 호주 정상의 자원외교 노력은 계속되고 있음.
- * 호주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인도로의 우라늄 수출을 금지함.
- 호주 정부는 민간분야를 통한 자원 수출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 효과적으로 수출 진흥을 이룰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민간 분야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여 호주 자원의 해외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호주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풍부하고 다양한 광물자원 매장량을 바탕으로 외국기업 참여가 지속될 전망

- 이와 대조적으로 석탄 수출 경쟁국인 인도네시아는 2009년 광업법 도입을 통해 국내시장우선조달(Domestic Market Obligation)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업체에 대해 약연탄(low-rank coal)의 수출을 2014년 이후 전면 금지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음.

2. 관련법령 및 규제

□ 광업 관련 법규

- 토지소유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에너지·광물자원은 국가에 귀속
 - 각 주는 각자 관할지역 광업활동 관리를 위해 주별 특성에 맞게 법규를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호주 연방법과의 충돌 발생 시 연방법이 우선 적용됨.
- 주별로 조금씩 다른 형태의 광업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유사하며 채광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Western Australia주의 관련법이 호주 자원정책 법규의 좋은 예시가 되고 있는데, 아래 4개의 법이 적용되고 있음.
 - Mining Act 1978(채광법)
 - 광물탐사 단계부터 채굴에 이르기까지 Western Australia주 역내 채광 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관할, 감독하는 법
 - 채광업체가 본 법을 위반할 경우 Western Australia 주정부는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
 - 본 법과 관련하여 주정부와 채광업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 총독 관할 법정(Warden's Court)에 분쟁 조정이 위탁됨.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환경보호법)
 - Western Australia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역내 채광 작업이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채광 작업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 Land Administration Act 1997(토지관리법)
 - 채광법에 의하면 1899년 이전에 취득된 광물자원을 제외하고 Western Australia주 내의 모든 광산과 광물자원은 연방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바, 채광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임대권을 연방정부로부터 사전 승인받아야 함.
 - 본 법은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양된 토지 관리권한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Native Title Act(NTA) 1993(원주민 토지 보호법)
 - 1992년 호주 연방 최고법원인 HCA(Hight Court of Australia)의 결정으로 제정된 법으로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인정 및 보호를 목적으로 원주민 소유의 토지거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
 - 채광 희망지역이 원주민 소유 토지일 경우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됨. 이는 상거래 능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이 토지거래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법규임.
- 한편 역외 자원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리감독을 규정하는 법으로 역외광물자원보호법(Offshore Minerals Act 1994)이 있음.
 - 본 보호법은 1994년 연방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으로 호주의 연해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자원을 제외한 기선(baseline) 3해리 이상의 영해(領海) 해저수역에 매장된 모든 광물자원과 관련된 탐사, 발굴,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역외광물자원보호법 22조에 의하면 광물자원은 해안 기선 3해리 이상의 영해 해저수역에 매장된 각종 형태의 모래, 자갈, 점토, 석회암, 암석, 증발암, 이판암(shale), 석탄 등 모든 종류의 해저 광물로 정의되어 있음.
- 본 보호법의 주요 관할사항은 탐사, 유보(retention), 채광, 작업 라이선스 발행. 영해 3해리 이내 해저수역에 매장된 광물자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해당 주에 귀속되어 있어 각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역외광물자원보호법(OM Act)을 표본으로 해 각각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있음.
- 석유의 경우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Petroleum(Submerged Lands) Act 1967(석유 및 침수지 보호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됨.

□ 광업권 제도 및 신청절차

- 호주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기 탐사, 정밀 탐사 및 프로젝트 평가, 광산개발의 3단계 절차를 거치게 됨.
 - 각 단계별로 광물탐사권(Exploration Licence), 유보승인권(Retention Licence), 광산개발권(Mining Lease)을 취득해야 함.
- 광물탐사권(Exploration Licence)
 - 신청 : Queensland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상세 탐사방법과 투자비 지출계획이 포함된 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정부로부터 승인을 취득해야 함.
 - 공시 및 의견수렴 : Queensland주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탐사권 신청내용을 공시해야 함.

- New South Wales주, Queensland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광물 탐사권 신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Western Australia주와 Tasmania주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특히 Tasmania주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토지나 부동산 소유주만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및 보상
 - Queensland주에서는 해당 토지에 진입하기 전에 토지 소유주에게 진입사실을 통보해야 함.
 - New South Wales주에서는 탐사권자가 탐사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토지 소유주와 토지 진입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독자가 중재를 하기도 함.
 - 탐사권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손실(지표면 훼손, 다른 토지로부터 단절, 접근로의 봉쇄·변경, 기타 보수가 요구되는 훼손 등)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토지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지불해야 함.
 - 보상가격은 탐사 광물의 수량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음.
 - 탐사권자와 토지 소유주 간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될 경우 감독법원의 중재를 받거나 법원이 보상금의 범위를 결정하게 됨.
- 평가 및 승인 : 모든 신청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평가
 - 탐사권 승인에는 환경관리와 원상복구에 대한 각종 조건이 부여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승인 이후에도 추가 조건부과가 가능함.
 - Queensland주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광산·에너지부(Department of Mines and Energy)가 아닌 환경보호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음.
- 허가면적 : South Australia주와 Tasmania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탐사권 허가지역을 위도 1분, 경도 1분으로 구획한 경위도 블록별로 설정함.

- 광물탐사 최대 면적은 주별로 상이하여 신청 사안별로 1블럭부터 Western Australia주의 70블럭까지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 Northern Territory주는 최대 500블럭까지 신청 및 승인 가능
- 허가기간 및 갱신 : 광물탐사권의 허가기간은 통상 3년 또는 5년
- 탐사권을 갱신할 때 일부 면적을 포기해야 하며 주정부도 필요에 따라 허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허가비용 : New South Wales주와 Victoria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비와 연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
- 50블럭에 대한 탐사권의 연간 임대료는 Victoria주의 A\$200에서 Western Australia주의 A\$4,120 등 주마다 다양함.
- 탐사권의 이전 및 정지 비용도 주별로 상이한데 New South Wales주는 탐사권 거래수수료가 탐사권당 A\$350이고 이전 등록 비용은 A\$360이나, Victoria주의 경우 처리비용을 부과하지 않음.
- 유보승인권(Retention Licence)
 - 정의 : 광물자원을 발견하였으나 아직 경제성이 부족하거나 개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개발을 유보할 경우 해당 자원의 개발권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하는 권리
 - Victoria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유보승인권 제도를 운영함(New South Wales주: AL, Queensland주: MDL).
 - 신청 : 사업계획서와 함께 자원의 잠재적 경제성을 입증해야 함.
 - 신청절차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물탐사권 신청절차와 유사
 - 신청내용 공시 : 광물탐사권과 마찬가지로 신청내용을 공개하고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함.
 - Western Australia주와 Tasmania주는 유보승인권 신청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반인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Tasmania주는 해당 토지의 소유주나 점유자 또는 관계자만이
이의 제기할 수 있음.
- 허가기간 및 조건 : 허가기간은 통상 5년이며, 갱신이 가능하고
채광권 신청에 우선권이 있음.
- Western Australia주는 광산개발권을 승인받는 권리 부여
- 보상 : 광물탐사권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함.
- Western Australia주, South Australia주, New South Wales주는
보상금을 토지 사용료와 손실 보상 및 사회적 피해액으로 산정
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중재함.
- Queensland주는 감독법원 대신 토지와 자원 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이 그 역할을 담당함.
- Tasmania주는 사유지에 유보승인권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재산
채권을 요구함.
- 비용 : 신청비 및 연간 임대료, 취급 수수료 등은 각 주별로 다양함.
- Tasmania주는 A\$303, New South Wales주는 A\$1,800
- 광산개발권(Mining Lease)
 - 신청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광산개발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광물탐사권과 유보승인권 보유자에게 우선권이 있음.
 - Queensland주에서는 광물탐사권이나 유보승인권이 있는 경우만
광산개발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는 광산개발에 대한 계획 및 특이사항 등을 제출해야 함.
Western Australia주와 Queensland주는 광산개발에 필요한 상세
내용을 추후 제출 가능

- 신청내용 공시 : Tasmania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신청내용을 통지해야 함.
- 지역주민이 신청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부 간행물이나 지역 신문을 통해 대중에 공개해야 하며, 신청에 대해 일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New South Wales주, Western Australia주, Queensland주, Tasmania주, Northern Territory주에서는 공청회 개최가 필수
- Tasmania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토지 소유 또는 점유자나 관계자로 한정함.
- 허가지역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광산개발권 허가지역을 거주지나 사용 중인 사유지에서 100~200m 떨어진 지역으로 한정
- South Australia주는 사유지에서 400m 이상 떨어진 지역만 허가
- Western Australia주는 공유지에 대한 허가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Victoria주의 경우는 공유지에 대한 허가 거부권이 없음.
- 보상 : 광산개발 활동에 따른 보상은 유보승인권 에 대한 보상과 유사
- Queensland주와 Tasmania주에서는 광산개발권 승인 전에 보상 합의서를 제출해야 함.
- 노천채광이나 지표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광산개발업체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
- 환경 관리 :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 취득 후 광산개발 신청가능
- 환경복구기금을 채권이나 증서로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광산개발권 승인 이후 환경복구 조건을 추가로 제시할 수도 있음.
- 허가기간 : Queensland주에서는 허가기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Tasmania주와 Northern Territory주는 주무장관이 결정함.
- 광산개발권의 허가기간은 통상적으로 25년이며 갱신도 가능

- 허가면적 : New South Wales주, Queensland주, South Australia주, Tasmania주에서는 최대 허가면적이 있음.
- Victoria주는 장관의 승인을 득하면 260헥타르 이상도 허가 가능
- 비용부담 : New South Wales주 외의 지역에서는 광산개발업체가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함.
- 광산개발권 허가에 따른 비용은 지역별로 상이함. 첫째의 경우 신청비와 임대비를 합하여 100헥타르당 Western Australia주는 A\$1,200, Queensland주는 A\$4,340 부과
- 처리비용도 각 주별로 다르며 New South Wales주의 명의이전 및 등록비용은 A\$1,260

□ 외국인투자 제도

○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변화

- 호주 정부는 2008년 2월 외국정부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기업의 對호주 투자 심사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재무부가 특정 외국인투자가 동 가이드라인에 불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불허하거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이는 최근 국부펀드의 확산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 선진국 정부의 국부펀드 규제 움직임 중 하나로 IMF와 OECD도 국제공조를 통한 국부펀드 관련 국제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호주는 이미 「외국인 인수·합병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외국정부 소유 기업의 투자에 대해 규모에 상관없이 사전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부여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 외국인투자와 국익 간 연관성을 검토하는 재무장관의 자문기관
 - 외국인투자가 국가방위나 경제발전과 상충되는지, 외국인투자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호주 국익에 부합되는지, 다른 정부정책이나 시장경쟁, 호주 내 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함.
- 일반적 외국인투자 심사
 - 심사대상
 - 자산규모 A\$50백만 이상인 기업의 지분 인수
 - 전체 투자액이 A\$10백만 이상의 신규 사업
 - 자산규모 A\$50백만 이상인 호주 기업의 해외지사 인수
 - 도심지역의 부동산 인수 또는 관련 신탁회사 지분 인수
 - 방송, 교통, 관광관련 산업
 - * 우라늄광산, 항공, 대중방송, 도심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Queensland주는 별도로 외국인 토지소유권을 규제함.
 - 심사기준 및 절차
 - 자산규모나 투자규모가 A\$1억 미만인 경우 민감한 사업부분이거나 국익에 저촉되지 않으면 통보 후 이의제기 없음.
 - 자산규모나 투자규모가 A\$1억 이상인 경우 신고서 검토 후 승인

□ 환경규제

○ 연방정부

- 환경보호·생물다양성 보존법(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1999 : EPBC Act)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을 취득해야만 함.
 - 프로젝트들이 연방정부 관할지역내 위치하고 있을 경우
 - 프로젝트가 국가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 * 호주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세계 역사 또는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습지³⁾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조류나 철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원자력 관련 활동의 경우
- 연방정부의 승인절차
 - 의뢰(Referral) :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뢰
 - * 20일 내에 환경보호·생물다양성보존법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평가(Assessment) : 제출자료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 *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승인(Approval) : 적법성을 판단하여 승인/기각 결정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분담
 - 양자합의(Bilateral Agreements)에 의거, 연방정부는 국가적 주요 환경요소들에 대한 평가만을 수행하고 그 밖의 요소들에 대한 평가는 주정부에서 수행함.

3) 물새 등 희귀동식물의 중요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을 통해 공식 지정한 습지

○ 주정부

- 주정부는 관할지역 육상과 해안선에서 해상 3마일 내에 부존하는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보유하며, 이에 대한 환경보호 책임과 권한도 함께 가지고 있음.
- 각 주정부별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인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음.
- 제안서 제출 : 광업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해 광업활동을 진행하면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 Impact Statement, EIS)를 제출함.
- 제안서 평가 : 주정부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하여 평가함. 공식적인 검토기간은 통상 8주~12주 정도이며 심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함.
- 정부 승인 :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심의과정을 통과하면 주정부 해당부서는 승인, 조건부승인 또는 기각의 결정을 내림.
- 주정부는 광업회사들이 광업권 취득 시 부여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함.

□ 광업 관련 조세

○ 광물자원임대세(Mineral Resource Rent Tax, MRRT)

- 배경
 - 비재생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 전반에 걸쳐 균등 분배하여 자국 경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
 - 실제 광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는 별개로 생산 광물 가치기준으로 부과되는 주정부 로열티의 한계점을 보완

- 2010년 자원초과이익세(RSPT)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2010년 7월 주요 자원기업들과의 전격적인 협상을 통해 광물자원임대세(MRRT)로 변경
- 2011년 11월 하원의회를 통과하면서 2012년 7월부터 발효

- 개요

- 시행시기 : 2012년 7월 1일
- 대상광종 : 석탄 및 철광석
- 과세대상 : 과세대상 이익이 A\$75백만 이상인 기업
- 개별프로젝트 단위로 부과되며 연결납세로 모회사 납세의무
- 과세율 : 30%(실효세율 22.5%)
- 과세점 : 원광 채광 후 선별작업 전까지의 활동

○ 법인세(Company Tax)

- 배경

- 2000/01 회계연도부터 부가세(GST)를 도입하여 법인세율이 36%에서 현행 30%로 인하하였으나,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다소 높은 법인세율이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인하 추진
- *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 : 25.4%(2012년 기준)
-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광물자원임대세를 신규 도입하여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투자유치 및 국제경쟁력 확보 추진

- 개요

- 시행시기 : 2013년 7월부터 인하된 법인세율 적용
- 과세율 : 29%(기존 대비 1%p인하)

○ 탄소세(Carbon Tax)

- 배경

- 호주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탄소배출을 연간 1,200만 톤씩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탄소세를 도입
- 청정에너지 입법안이 2011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11월에 상원의회까지 통과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됨.

- 개요

- 시행시기 : 2012년 7월 1일
- 과세대상 : 농업을 제외한 에너지산업, 교통산업, 산업시설, 폐기물 처리, 석탄, 원유 및 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 과세율 : A\$23/톤(2012년)→A\$24.15/톤(2013년)→A\$25.40/톤(2014년)
* 2015년부터 배출거래제(ETS)로 전환할 계획
- 과세기준 : 연간 2.5만 톤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적용

○ 로열티(Royalty)

- 부과 주체 : 주정부

- 부과율 : 주정부별 부과방식이 상이

예) New South Wales주

구분	Royalty 부과율	비고
갱내(심도 400m 이상)	6.2%	2009년 1월 Royalty율 인상
갱내(심도 400m 이하)	7.2%	
노천	8.2%	

* 광산 개발방식 및 채굴심도에 따라 Royalty 차등 적용

- 공제 항목

- 원탄처리 관련공제 : 선탄 A\$3.5/톤(정탄기준), 단순세탄 A\$2.0/톤(정탄기준), 파쇄 A\$0.5/톤(정탄기준) 등 선탄 관련 비용 공제

- 세금 공제 : 석탄탐사세(Coal Research Levy), 탄광침하세(Mine Subsidence Levy), 탄광구호세(Mine Rescue Levy), 탄광안전세(Mine safety levy), 장기고용세(Long Service leave)
- Queensland주 로열티 부과현황
 - 모든 종류의 석탄 : 석탄 가치의 7%(판매가 A\$100 이상은 10%)
 - 토탄(Peat), 비철광석, 주석정광 : A\$30,000 이내로 총 판매액의 2%
 - 보크사이트 : 주외 반출은 톤당 FOB(본선인도가격)의 10%와 톤당 A\$1 중 큰 금액(주내 소비는 주외 반출 시의 50%)
 - 동·연·아연·코발트·니켈 : 고정비율 2.7%(공제액 : A\$7,500/분기) 또는 분기별 변동비율 1.5~4.5%중 선택하여 납부
단, A\$4백만 이상 금액은 50% 감액하고, 주 내에서 처리할 경우 처리비용 공제(코발트, 동, 니켈 : 20%, 연 : 25%, 아연 : 35%)
 - 금·은 : 분기별 최소 법적 공제액인 A\$7,500을 제한 수익에 대하여 고정비율 2.7% 또는 자원성의 분기별 변동비율 1.5~4.5%중 선택하여 납부
 - 철광석 : A\$0.35/톤

3. 자원개발 인프라

□ 운송 인프라

- 호주는 주요 광물·에너지자원이 내륙에 부존하여 이를 개발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한 주택, 노동력 공급 및 사회 제반여건이 동반하여 성장해야 함.
- 호주 인프라는 주로 광산개발과 연계하여 개발되어 왔으며, 특히 광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항구, 철도, 도로 등 주요 인프라 투자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호주 인프라 투자현황>

(단위: 백만 A\$)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CAGR
Port	96	169	180	194	419	577	701	702	1,057	1,171	1,724	34%
Rail	411	367	663	749	1,106	1,493	1,252	1,962	1,727	2,285	3,579	24%
Road	3,697	3,259	3,429	4,086	5,194	6,736	6,973	8,025	9,263	9,196	11,200	12%
합계	4,203	3,794	4,272	5,028	6,719	8,806	8,925	10,689	12,047	12,652	16,503	15%

자료원: OECD

<주별 광업인프라 거점>

주	광업 중심지역	개수
WA	Kimberley, Pilbara, Mid West, Goldfields-Esperance, South West (Peel 지역포함)	5
QLD	Mt Isa-Townsville, Newlands-Abbot Point/Bowen, Northern Bowen-Mackay, Fitzroy, Surat, Ipswich	6
NSW	Hunter Valley, Southern Central & Far Western	3
VIC	Gippsland, Western Victoria	2
TAS	Cradle Coast	1
NA	Northern, Eyre Peninsula, Fleurieu/Mid North/South East/Riverland	3
NT	Darwin	1
합계		21

자료원: 호주 광업성(Mineral Council of Australia) Vision 202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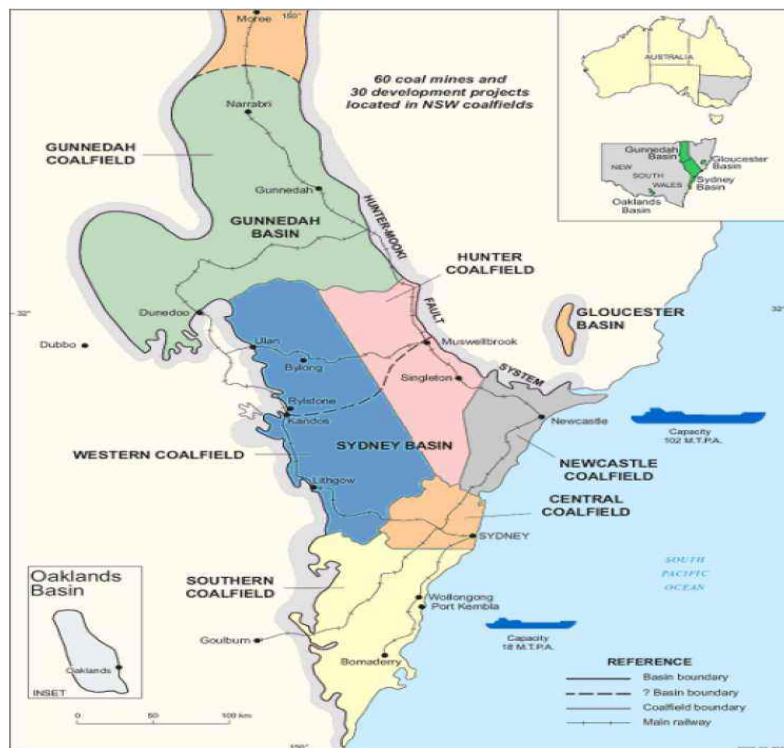
○ 주요 주별 인프라 현황

- New South Wales주

- 호주에서 자원개발이 가장 먼저 활성화된 지역이며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우수하나 일부 시설은 노후화로 보수가 시급한 상황
- 주요 생산 광물은 석탄이며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도로, 철도를 통해 운반

- 내수용의 경우 컨베이어 또는 도로를 통해 운반하며 수출용의 경우 수출항까지 대부분 철도로 운반
- 광물자원의 주요 생산지역(Hunter Valley region, Southern region, Central and Far Western region)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발달됨.

<New South Wales주 탄전 및 주요 철로>



자료원: NSW Department of Minerals

- Queensland주

- 일찍부터 석탄 산업이 발달하여 인프라 설비가 양호하며 다른 주에 비해 인프라 관련 투자액이 많고 동남지역은 도로, 철도, 항만이 잘 발달되어 있어 국제무역에 이점을 보유
- 5개 석탄운송 철로와 4개 항구를 통해 석탄을 수출하며 2012년 217 메가톤에서 2015년에는 250 메가톤으로 수출량을 늘릴 계획

- Western Australia주

- 자원 및 관련 인프라 투자규모가 급증 하고 있는 지역
- 세계 최대 규모의 수출항인 Dampier항과 세계 최대의 철광석 수출항인 Port Hedland항을 보유
- 호주 동부지역의 유연탄 중심 인프라와 달리 철광석을 포함한 금속광 생산을 위한 인프라가 주로 형성되어 있음.

<Western Australia주 주요 인프라 현황>

지 역	수출광종	운송수단	비 고
Kimberley	다이아몬드	항구, 도로	· 광범위한 도로망이 자원개발에 주요한 역할
Pilbara	철광석	항구, 도로, 철로	· 세계 최대규모 수출항 (Dampier항) 및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항(Port Hedland항) · 철광석 운반을 위해 철도 사용
Mid West	금/ 비철금속	항구, 도로, 철로	· 광물자원 운반에 도로가 매우 중요한 역할 · 철로는 철광석 운반에 필수적 역할을 하나, 항구까지 연결된 철로 개선 필요
Goldfields-Esperance	금/니켈	항구, 도로, 철로	· 대부분의 철로가 광물 운송수단으로 이용 · 대체적으로 열악한 철로 상황으로 개선작업이 진행 중
South West and Peel	알루미늄/ 석탄/금 등	항구, 도로, 철로	· 철로 운송시스템이 중요하나, 열악한 상황임

자료원: 한국광물자원공사

□ 노동력 조달

○ 기업이민협정(Enterprise Migration Agreements)

- 배경 : 자원산업 활성화와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프로젝트 단위로 정부와 기업이 합의한 맞춤형 초청이민제도
- 새로운 이민제도나 비자가 아니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필요에 따라 해외 기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제도

- 인력충원 원칙 : 호주 국민을 고용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필요에 따라 해외초청 인력으로 보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연혁 : 2011년 5월 기업이민협정(EMA)이 발효되어 2012년 5월 최초로 연방정부가 Western Australia주 Roy Hill 철광석 프로젝트에 1,713명의 해외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EMA 발급
- 적용대상 : 투자액 A\$20억 이상, 고용인원 1,500명 이상인 프로젝트
- 기업이민협정 사례(Roy Hill 철광석 프로젝트)
 - 위치 : Western Australia주
Pilbara지역 Newman市 북동쪽 105km 지점
 - 광산개요
 - 생산방법 : 노천
 - 생산규모 : 연산 5,500만 톤
 - 인프라: Port Hedland 항만 설비 및 370km 철로 건설
 - 주요 인프라 건설 내역
 - 철도, 항만, 선·하역장 등 운송 인프라 및 선광장 등 광산 시설
 - 자본투자금액 : A\$100억
 - 필요 고용인원 : 건설공사(3,500명), 광산운영(1,600명)
 - 기업이민협약을 위한 기업 제안 사항
 - 호주인 2,000명에게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호주인 실습생 200명 이상 채용
 - 건설공사에 원주민 100명 채용
 - 기업이민협정 판결 : 1,713명을 해외 채용하여 호주로 초청 허용

□ 기술

- 호주의 높은 광물산업 비중에 따라 관련 산업도 급속도로 발전
 - 광산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비롯하여 과학적 분석, 탐사·평가 기술, 광물 처리기술, 환경 및 안전 서비스 등 선진기술을 보유
- 호주 광업 탐사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은 2010/11 회계연도 기준 A\$91억에 달하며 이에 더해 관련 R&D 사업에 지속 투자, 광업 분야 관련 호주 국가 경쟁력을 급속도로 발전시킴.
 - 독일의 우수 화학업체 BASF는 2012년 7월 호주 Perth 지역 광산 프로세싱 및 메탈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 R&D시설 건립
 - 미국 소재의 세계 최대 종합 전력회사인 General Electric 또한 2012년 11월, Perth에 호주 최대 규모의 석유 및 가스 관련 technology & learning 센터를 개설
 - 2013년 1월, GE의 광산 계열사인 GE Mining은 호주 Brisbane에 소재한 유수의 광산 기기 제조업체인 Industree Ltd를 인수함.

IV 우리의 진출전략

1. 종합적 진출방안

□ 정부정책 방향

- 한·호주 FTA 체결을 통해 호주 자원시장 개발에 적극 참여
 - 한·호주 FTA 협상은 2006년 시작되어 2010년 5월 캔버라에서 개최된 5차 협상에서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합의 도출
 - 하지만 이후 쇠고기 양허수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

※ 한·호주 FTA 관련 쟁점

- (쇠고기 양허수준) 호주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세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미 FTA와 동일한 철폐일정(15년)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보다 장기간의 일정 제시
- (ISD 포함여부) 한국은 자원개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SD 조항의 포함을 주장하나 호주는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를 우려하여 포함 불가 입장

- 미국은 2005년 미·호주 FTA 발효 이후 투자여건 개선으로 對 호주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바 있음.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자원개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우리도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한·호주 FTA 체결 필요
- 호주는 다양한 광종 탐사 및 채굴에 관한 고급기술을 보유하여 FTA를 통해 인력공급을 확대한다면 우리의 광산개발 기술향상과 관련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또한 광물자원 개발과 더불어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도 관심을 가질만한 부분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부조달이나 서비스, 투자 협상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 자주개발률 개선과 내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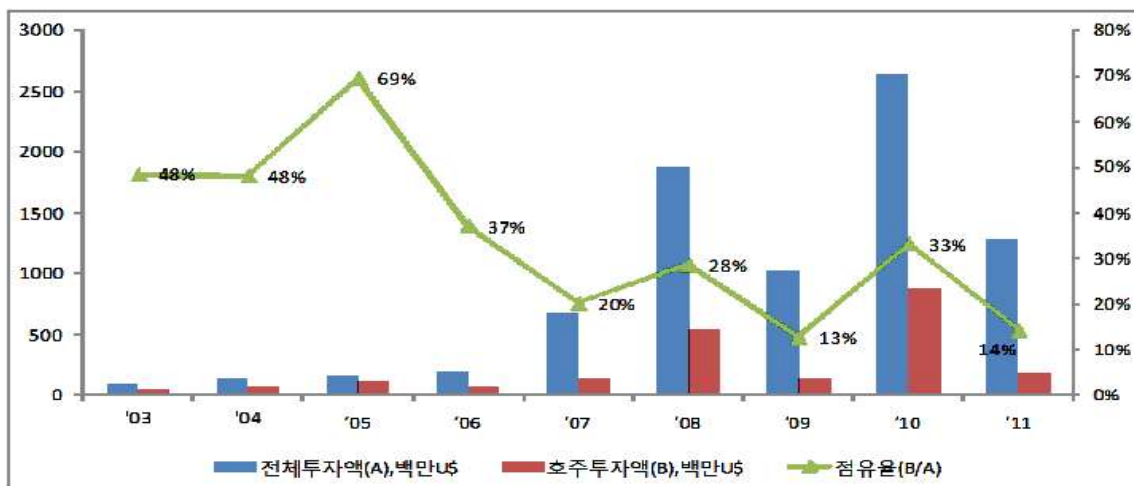
- 정부는 주요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제조업의 생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0년 전략광물 자주개발률⁴⁾ 목표를 상향 조정
- 2008년 촉발되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최근 중·일 간 희토류 갈등과 같은 자원무기화 경향에서 호주는 자유로운 입장이므로 내실 있는 전략자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기업차원 전략

○ 對호주 투자비중 확대

- 우리의 對호주 자원개발 투자는 2007년 이후 크게 증가 추세이나 국가별 비중에서는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냄. 이는 당시 자원외교 정책으로 남미 등지로의 신규투자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 양적확장에 치우치기 보다는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수익성 높은 호주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對호주 자원개발 투자금액 추이>



자료원: 한국광물자원공사(2012)

4) 특정 자원의 국내소비량 중 자국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한 국가의 자원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

<지역별 광물자원개발 투자실적>

(단위: 백만 US\$, %)

구분	대양주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양아	북미	동북아	기타	합계
2009년	134	182	529	13	60	75	34	-	1,027
2010년	882	555	259	830	19	74	5	16	2,640
증감률	558	205	△51	6285	△68	△1	△85	16	157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2011)

○ 투자규모의 대형화

- 중국은 국부펀드의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호주에서 성장이 유망한 광산 및 에너지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 한국도 자금 동원 능력이 상대적으로 건실한 정부나 대기업 주도로 대규모 펀드를 형성하여 투자모색 필요
- 최근 들어 국제 자원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호주 상장 자원기업의 주가 역시 하락추세로 광산, 에너지 관련 우량 중·소형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됨.

○ 투자형태의 다각화

- 우리 기업들은 주로 호주 상장기업의 철광석, 석탄개발 등 개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단순 지분투자를 통해서만 개발 노하우 축적이 어려움.
- 중국과 같이 상장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고 경영권에 참여하여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면서 대형 프로젝트 운영, 개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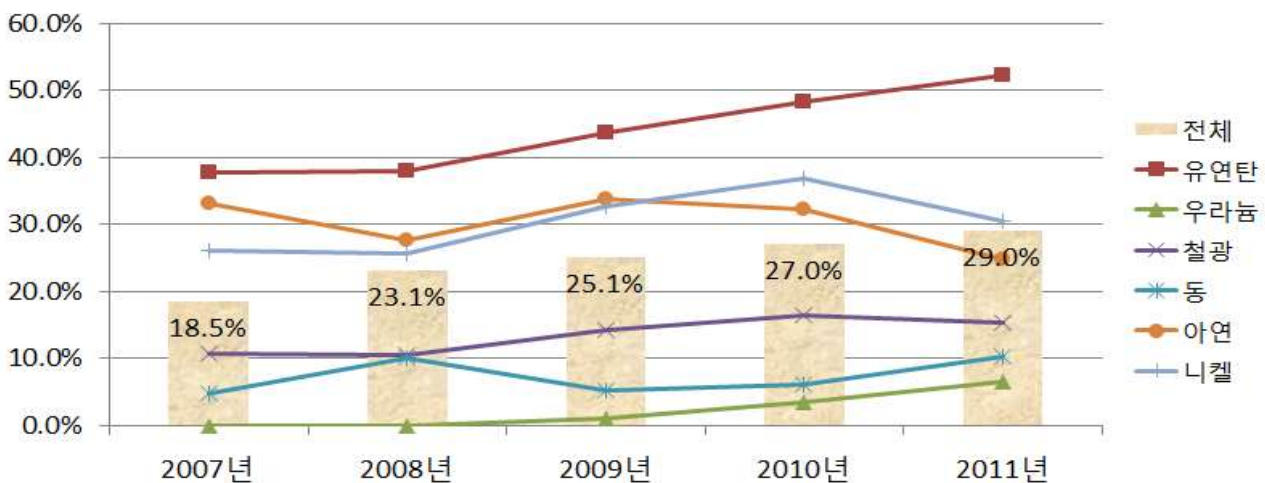
2. 유망 진출분야

□ 호주 자원개발 유망 진출분야

○ 주요 전략광물

- 전략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급선 확보가 중요
 - * 6대 전략광물 :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 호주는 우라늄, 아연, 니켈 매장량이 세계 최대이며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잘 마련되어 있어 향후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향상을 위한 직접투자가 유망한 지역

<주요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추이>



자료원: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2012)

○ 천연가스(LNG)

- 천연가스의 경우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양호한 개발환경을 보유한 호주는 비교우위를 지님.
- 호주는 현재 우리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규모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도 진출확대 필요

○ 우리기업 호주진출 성공사례

- 2013년 3월 삼성물산은 약 A\$55억 규모의 Western Australia주 Roy Hill 철광석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우리의 광산개발 기술력을 인정받음.
- 2012년 6월 대우인터내셔널은 호주 Narrabri 지역에서 유연탄을 대량생산 개시,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가능해짐.
- 2012년 한국가스공사의 호주 북서부 해역 Prelude 가스전 LNG 도입 계약을 통해 국내기업이 부유식 LNG 생산저장 하역설비 수출을 달성함.

3. 진출 시 유의사항

□ 종합적인 사전준비 필요

○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 자원개발 투자에는 대규모 자본이 동원되고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금융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
- 정부와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충분한 효율성 달성이 가능한 규모의 프로젝트 개발 필요

○ 장기적 관점의 투자계획 수립

- 면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실적 도출이 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역량을 집중하여 질적성장을 도모해야 함.
- 고정비용이 높은 산업 특성상 생산량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격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습득해야 함.

- 투자 정보조사 및 협력채널 확대
 - 자원개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양질의 정보획득이 중요한 요소
이므로 경쟁국에 앞서 정확한 개발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양국 간
민관 공동 협력채널 강화 등 면밀한 연구·분석 노력이 요구됨.
 -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의 정례적 개최에 이어 최근 New South
Wales주, Queensland주, Western Australia주 등 주정부와도
에너지·자원협력 포럼을 추진하는 등 상호교류가 증가하며 긍정
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13-014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013.2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2013.2
13-016	주요국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2013.2
13-017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2013.2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3.3
13-019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3.3
13-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기타 무선통신기기>	2013.3
13-02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2013.3
13-02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2013.3
13-024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멕시코	2013.3
13-025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2013.3
13-02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유리 저장 용기 -	2013.3
13-027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2013.3

13-028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9	2013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4
13-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X선 및 방사선기기부품 >	2013.4
13-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초화장품 -	2013.4
13-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합성수지·합성고무 -	2013.4
13-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기타기계류 -	2013.4
13-03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스키 헬멧>	2013.4
13-035	Post Chavez, 변화와 전망	2013.4
13-036	2013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2013.4
13-037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3.4
13-038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	2013.4
13-039	Putin 취임 1주년 경제 진단 및 전망	2013.5
13-040	유럽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서유럽편 -	2013.5
13-041	유럽 온라인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 동유럽·북유럽편 -	2013.5
13-042	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1년과 향후 전망	2013.5
13-043	핀란드 창업·재취업 프로그램 현황 및 시사점	2013.5
13-044	日 엔고극복 사례가 주는 에너지고시대의 시사점	2013.5
13-045	CIS 대형 유통망 현황 및 진출 방안	2013.6
13-046	해외 기업의 CSV 사례	2013.6
13-047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사업환경 변화와 시사점	2013.6
13-048	호주 자원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2013.6
13-049	2013년 3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6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대만시장에서 한류 활용하기	2013.1
13-0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2
13-003	한중 FTA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	2013.5
13-004	中國寶庫-양회시리즈	2013.5
13-005	중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400인 (Who's who in China's Leadership)	2013.6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13-00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1
13-003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3.1
13-004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2013.2
13-005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2013.3
13-006	국가IR 개선 방안 연구	2013.3
13-007	2009~2012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성공사례집	2013.3
13-008	2013 외국인투자 가이드	2013.4
13-009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업체 디렉토리	2013.5
13-010	각국별 해외전시회 참가 가이드	2013.5
13-011	2013 이라크-요르단 시장조사단 종합 결과 보고서	2013.5
13-012	2012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3.5
13-013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2012	2013.5
13-014	엔저가 일본의 對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	2013.5
13-015	세계 주요국 전력시장 현황	2013.5
13-016	미얀마 투자실무가이드	2013.5
13-017	2013 외국인투자상담 Q&A	2013.5
13-018	201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3.5
13-019	Global Green Hub Korea 2013 결과보고서	2013.5
13-020	2013 글로벌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3.6
13-021	중소기업을 위한 온라인 수출 마케팅 가이드	2013.6
13-022	이것이 글로벌 명품전시회다	2013.6
13-023	2013 Doing Business in Korea	2013.6
13-024	러시아 프로젝트 진출 가이드	2013.6
13-025	유럽 비즈니스 위크 개막 세미나 (공공조달 진출 전략)	2013.6
13-026	브라질 태양광 프로젝트 예비조사 보고서	2013.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
13-002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

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3.1
13-004	Iraq-Korea Business Forum	2013.3
13-005	Reshoring to KOREA - 국내 U턴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환경 설명회 -	2013.4
13-006	2013년 제1회 차이나 커뮤니티 세미나	2013.3
13-007	Global Project Plaza 2013	2013.5
13-008	2013 철도 기자재 조달 플라자 Railway Procurement Plaza 2013	2013.5
13-010	2013년 유럽 주요국 대형유통망 현황 조사	2013.6
13-011	선진 ESCO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6
13-012	Europe Business Week 2013 - 유럽 유통망 진출전략 설명회 -	2013.6
13-013	Europe Business Week 2013 - 유럽 공공조달 진출전략 설명회 -	2013.6
13-014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	2013.6



작성자

- ◆ 시드니무역관 서유빈 과장
- ◆ 선진시장팀 이동훈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3-048

호주 자원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배창현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3년 6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